

TV 27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Table with 5 columns: 채널A, KBS1, KBS2, MBC, KBC/SBS. Rows list various TV programs and their broadcast times.



“파란만장 ‘장미’덕에 연기 근성 생겼어요”

MBC ‘장미빛 연인들’ 무사히 마친 한선화

“제 근성에 대한 믿음이 생겼어요.” 시크릿의 한선화(25·사진)는 52부작 MBC TV 주말드라마 ‘장미빛 연인들’을 끝내고는 어려운 과제를 해결한 듯 기쁜 표정이었다. 지난해 SBS 드라마 ‘신의 선물-14일’에서 작은 역할을 천연 덕스럽게 연기해 호평받은 그는 같은 해 tvN 드라마 ‘연애 말고 결혼’에서 비중 높은 조연으로 잇달아 출연하더니 이번엔 장편드라마 주인공을 거뜬히 소화했다. 종영 후 아이돌 출신 연기자에게 붙는 수식어인 ‘연기돌’에서 가능성 있는 배우로 도약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최근 삼정동 한 카페에서 만난 한선화는 “52부작을 소화하며 캐리커를 책임감 있게 끌고 가야 하는 책임감을 배웠다”며 “나 자신을 테스트해본 것 같다”고 스스로 대견한 듯 보였다. ‘장미빛 연인들’에서 백장미는 극이 거듭할수록 내적인 변화와 성숙을 거치는 여이었다. 고생이라고는 모르고 자란 절없는 ‘마미갈’로 엄마 친구 아들 박사(이정우 분)을 만나 혼전임신을 하고 부모의 반대 끝에 결국 가정을 버린다. 그러나 배우로 성공한 뒤 강한 모성애에 끌려 재벌남과의 재혼을 포기하고 아이와 차돌에게 돌아가는 캐릭터다. 그는 “장미는 워낙 기복이 심하고 감정선이 왔다 갔다 하는 여이어서 체력 소모가 심하고 정신적인 에너지도 많이 필요했다”며 “때론 버거워 흐름이 끊기기도 했고, 감정이 와 닿지 않아 힘들기도 했다”고 털어놓았다. 그럴 때마다 한선화는 장미가 어떤 생각을 했는지 상상하며 일기를 써보곤 했다. 성격상 재미를 붙이려면 이해가 돼야 해야 한 문장이 납득되지 않아도 살을 붙여 자신만의 해석을 했다. 이 과정을 반복하자 장미가 아픔을 간직한 채 모성애를 깨달아간 것처럼 감정이 쌓이는 걸 기다려 역할에 과하지 않게 다가갈 수 있었다. “초콜릿이 연기하며 모성애가 보여야 해 난관에 부딪혔는데

장미도 처음부터 엄마는 아니었잖아요. 장미의 감정선을 고스란히 따라갔어요.” 덕분에 드라마를 모니터링하며 어느 순간 스스로에 대한 평가보다 시청자 입장이 돼 극에 빠진 자신을 발견했다고 한다. ‘내가 드라마에 몰입구나’란 생각을 한 순간이었다. 극 전개가 빨라 산후우울증을 겪고 아이와 남편 곁을 떠나는 장면이 두 회 만에 표현된 점은 아쉬운 대목이었다고 했다. 그는 “자식을 버리는 건 나쁜 일이지만 장미의 산후 우울증이 심하다는 게 충분히 표현됐다면 그런 행동을 이해하는 데 조금은 도움이 됐을 것 같다”고 말했다. 아이돌 가수로서 출신, 모성애를 표현하는 것도 힘들었지만 극 중 악의 축이던 백만종의 뜻을 거슬러 대치하는 장면도 만만치 않았다. “그런 아버지가 이해 안 돼 ‘현실에 이런 아버지가 있을까’란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장미에 몰입된 이후부터는 그런 아버지가 이해되더라고요. 극중 부녀 관계처럼 미운정 고운정이 쌓였어요. 하하.” 정보를 비롯해 임예진, 이미수, 장미희, 반효정 등의 중견 배우들과 호흡을 맞추며 돈 주고 살 수 없는 경험을 했다. 정보석에게선 연기에 대한 열정과 풍부한 표정을 배웠다. 장미의 엄마로 출연한 임예진은 평소 ‘세바퀴’ 등 예능 프로그램을 통해 친분이 있었다. 그는 “처음 해본 게 너무 많았다”며 “장미가 파란만장해서 좋았다. ‘내가 언제 이런 다양한 경험을 해볼 수 있을까’ 생각했다”고 말했다. 다음 작품에 대한 기대도 한층 커졌을 터. “다음 캐릭터를 만나는 게 아직은 설렘보다 두려움이 커요. 준비하는 동안 고��스럽고 도마 위에 올라가야 한다는 불안감이 있거든요. 그래서 ‘장미를 끝까지 잘 소화해줘 고맙다’는 댓글을 보고 울컥했어요.”

EBS 1

Table with 4 columns listing EBS 1 programs and their broadcast times.

EBS플러스1

Table with 2 columns listing EBS Plus 1 programs and their broadcast times.

EBS플러스2

Table with 2 columns listing EBS Plus 2 programs and their broadcast times.

‘어벤져스’ 나흘 만에 300만 관객 돌파

누적 매출액 260억원 ... ‘명량’과 비수

할리우드 블록버스터 ‘어벤져스-에이지 오브 울트론’<사진>이 개봉 나흘 만에 300만명을 넘는 관객을 동원했다. 26일 배급사 월트 디즈니 컴퍼니 코리아와 영화진흥위원회 영화관 입장권 통합전산망에 따르면 지난 23일 개봉한 ‘어벤져스 2’편은 이날 오전 중에 300만명을 돌파했으며 누적 매출액도 260억원을 넘어섰다. 앞서 이 영화는 토요일인 25일 하루에만 115만5657명을 끌어모아 개봉 이후 사흘간 누적 관객수는 243만1277명, 누적 매출액은 212억원으로 늘어났다. 개봉 3일째 200만명, 4일째 300만명 돌파는 국내 최대 관객(1761만명) 기록을 보유한 한국영화 ‘명량’과 같은 속도이며 외화로는 가장 빠른 것이다. 월트 디즈니 컴퍼니 코리아는 “전편 ‘어벤져스’와 ‘아이언맨 3’로 높아진 마블 영화에 대한 기대감이 깔려 있다”며 “한국 모습이 할리우드 블록버스터에 최장 시간 등장했다는 이슈도 있다”고 설명했다. ‘어벤져스-에이지 오브 울트론’은 ‘어벤져스’에 이어 아이언맨(로버트 다우니 주니어), 헐크(마크 러팔로), 캡틴 아메리카(크리스 헴스워스), 블랙 위도우(스칼렛 조핸슨) 등 어벤져스 군단이 인류의 적과 맞서 싸운다는 이야기다.



빅뱅, 내달 1일부터 3달간 프로젝트 싱글 발표

앨범 ‘메이드’ ... 9월 완성본 출시

그룹 빅뱅<사진>이 다음 달부터 3달 동안 매월 프로젝트 싱글 음반을 내고 이를 묶어 오는 9월 완성된 앨범을 발표한다. 24일 YG엔터테인먼트에 따르면 빅뱅은 다음 달 1일부터 8월까지 매월 1일마다 순차적으로 ‘엠’(M), ‘에이’(A), ‘디’(D), ‘이’(E)라는 타이틀로 프로젝트 싱글을 발표한다. 빅뱅은 데뷔 시절에도 이런 식으로 매월 싱글을 발매한 적이 있으며 9년 만에 다시 한번 같은 방식을 시도하는 것이다. 각각의 싱글 음반에는 1곡 이상이 수록되며 모두 출시된 뒤 하나로 묶여 9월 1일 ‘메이드’(MADE)라는 이름으로 발표할 계획이다. YG는 “완성도 높은 곡을 차례로 발표해 팬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것”이라고 밝혔다. 빅뱅은 오는 25~26일 서울 송파구 방이동 올림픽공원 체조



경기장에서 월드투어의 첫 번째 무대를 선보였다. 빅뱅은 이번 공연에서 다음 달 1일 발표할 신곡을 먼저 선보일 예정이다. /연합뉴스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4월 27일(음 3월 9일 癸酉). Horoscope section with zodiac signs and daily predictions.

“전화상담도 받습니다. 광주일보 독자환영!” ☎010-9790-8237